

숙련된 간호사 떠나지 않는 병원 만들어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시급 ...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2017 국정감사 현장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김옥수 간협 회장,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촉구

여야 국회의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복지부,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발표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월 3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사진)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밝혔다.



에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서는 "현재 간호관리료 수가 저평가 돼 있어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병원이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수가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병원의 수익은 간호사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 사업은 유류간호사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및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경력간호사가 많아져야 환자안전과

정원 증원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는 양적 확대 계획만 있고 원칙이 없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사의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 법정인력을 충족하는 기관은 39%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사 수급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도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준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문제

간호역량강화교육

'진정성의 여정 : 삶의 리더로 성장하기'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간호역량강화교육 '진정성의 여정 : 삶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명	진정성의 여정 : 삶의 리더로 성장하기
강사	이창준(구루피플스 대표)
일시	2017. 12. 7.(목) 14:00~16:00
신청기간	2017. 11. 6.(월)~11. 30.(목)
교육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교육인원	13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없음

*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 오프라인 무료교육 '진정성의 여정 : 삶의 리더로 성장하기' 검색 → 신청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 달성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3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달성 목표인 40.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 2016년 37.8%, 2017년 상반기 3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49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여성참여율이 38.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6년 대비 0.2%p 증가했다. 전체 위원 8288명 중 3046명이 여성이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20곳이다. 2014년 9곳, 2015년 10곳, 2016년 18곳, 2017년 상반기 20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4.4%로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31위를 기록했다. 2016년 35.7%에 비해 1.3%p 감소했으며, 순위는 2016년 27위에서 31위로 네 계단 하락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항을 조사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임진순번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논의

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상의해 간호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장문면허 간호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10월 31일 실시한 종합감사에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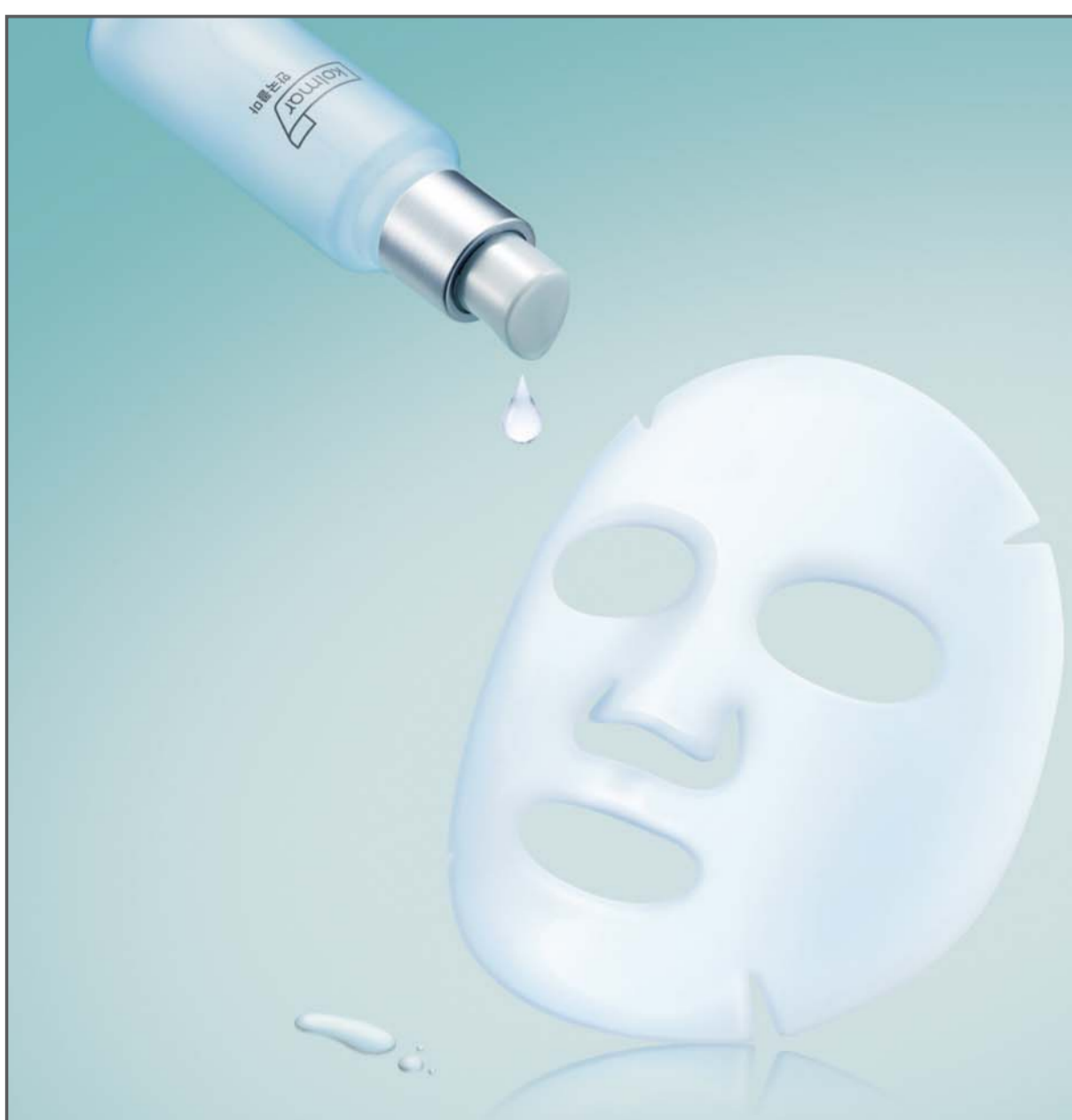
김옥수 회장은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4년, 신규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34%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관련 수가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옥수 회장은 "최근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2배 이상 늘었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이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장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불법 PA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병상수와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고, 선진국은 병상수와 재원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병상수와 재원일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간호사 이직방지 및 처우 개선 대책이 잘 마련돼 운영된다면 간호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공공병원



한국콜마가 만든 마스크팩

한국콜마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마스크팩이 탄생합니다.

마스크팩 전문회사 콜마스크로 시작합니다.

